



5면

"사회복지인 헌신과 열정에 감사"

# 전주매일

2023년 9월 8일 금요일 (음 7월 24일) 제334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민주 전북도당, 국회 본관서 대규모 상경 투쟁 “새만금 예산 삭감, 尹 예산독재”

전북지역 국회의원 등  
삭발 통해 도민 의지 전달  
한병도 위원장 “尹정부  
30년 간 희망 가져온  
도민들에게 만행 저질러  
군건하게 싸워나갈 것”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전북도민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의원, 익산율)은 7일 서울로 올라가 윤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을 규탄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대규모 상경 집회는 정부 여당이 새만금잠버리 파행에 따른 책임을 전복에 전가하면서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행위를 규탄하고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범도민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에는 전북지역 당원 2,000여명과 시민사회연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압 정치를 비난하고 “정부 주도하에 이뤄진 새만금잠버리 파행을 전북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후안무치를 일삼는 비민주적인 행위”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김윤덕·김성주·신영대·윤준병·이원택·안호영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들과 박희승·이병철 전북도당원의 지역위원장 등은 삭발식을 거행했다. 이들은 “무책임과 무능한 현 정권의 폭압이 전북의 미래를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분노를 감출 수 없다”는 입장과 이를 규탄하는 도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정부에 전달했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오는 14일 기획재정부 정문에서 삭발을 단행할 예정이다.

미아크를 잡은 한병도 위원장은 “지난 30년 간 새만금 하나 바라보고 희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윤준병·김성주·신영대 의원 등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새만금 예산삭감 규탄대회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망을 가져온 전북도민에게 윤석열 정부는 예산의 78%를 깎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80만 전북도민과 하나 된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의 예산 독재와 전복 확대에 맞서 단단하고 군건하게 싸워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전북도의회 의원들도 함께 했다.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은 “잠버리가 파행으로 끝난데 대한 충격과 허탈감이 치유되기도 전에 새만금 예산 삭감과 사업전면 재검토라는 핵폭탄을 맞았다”며 “새만금을 부정하며 전복을 흔들려는 졸렬한 세력에 끝까지 단호하게 맞서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지난 5일 의회 청사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인한 도민들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의원 14명이 단체 삭발을 했으며, 김성수·영영선 의원을 시작으로 천막농성장에서 릴레이단식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날 집회에 동참한 박광은 원내대표는 “예산은 무기 삼아서 화풀이하고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단식농성중인 이재명 대표도 규탄대회 현장을 찾으려 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다. 이 대표 표는 “새만금 예산 삭감은 예산 폭력 이자 예산 독재라는 상황을 당 차원에서 공감하며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는 정부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북도당은 규탄대회 참석자들과 함께 이날 오후 7시부터 ‘윤석열정권 폭정저지·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는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실태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를 방관하는 현 정부의 무능함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했다. /김재훈 기자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

## ‘용화세계, 백제인익산’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페스타, 내일 개막

2023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페스타가 9일 미륵사지 밤하늘을 빛의 향연으로 물들인다. 이번 페스타는 ‘용화세계, 백제인익산’을 주제로 9일 개막을 시작으로 10월 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미륵사지 일대와 익산박물관을 시공의 빛, 기억의 빛, 낭만의 빛, 영원의 빛, 추억의 빛 테마로 역사를 담은 밤 여행을 익산 방문객들에게 선사한다.

기존보다 더욱 향상된 드론라이프쇼, 융복합 미디어쇼, 미디어파사드, 환상적 경관조명으로 가득 찬 미륵사지가 펼쳐질 예정이다.

먼저 전국적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페스타의 시그처 프로그램인 드론 라이프쇼가 한층 향상된 기존 2회에서 4회로 확장 예정이다.

단순 쇼를 벗어나 ‘용화세계’라는 주제를 담아 내용면에서도 충실도를 더했다. 드론라이프쇼는 행사기간 중 16일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 저녁 메인 미디어파사드와 함께 미륵사지 석탑 일원 무대에서 펼쳐진다.

드론라이프쇼가 진행되는 날에는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서동궁원, 익산고 왕궁리유적을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셔틀버스를 20~30분 단위로 운행할 예정이다.

매주 주말에는 토요일 각 2회씩 익산시립무용단과 함께하는 용복

합 미디어쇼가 미륵사지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단순 미디어 쇼를 뛰어넘어 익산시립무용단 30여 명이 무용과 선화공주의 사랑, 백제의 평화와 번성 등을 표현한 융복합 미디어쇼로 준비해 품격있고 더욱 화려해졌다.

주말 이외에도 평일 저녁에 펼쳐지는 다양한 상설 프로그램들이 6만명 미륵사지 일원을 가득채울 예정이다.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동담과 서담 사이에 전국 최대 규모의 대형 스크린에서 메인 미디어파사드인 ‘용화세계’와 서브 미디어파사드인 ‘아로새겨진 마을’이 4회 상영한다. 양쪽 탑과 스크린을 오가며 펼쳐지는 환상적인 빛의 아트 관람객의 탄성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어린이 박물관 외벽을 수놓은 미디어파사드인 ‘밤이되면 되살아나는 박물관’, 행사 동선 내 곳곳이 자리잡은 다양한 신비로운 분위기의 포토존과 버스킹, 체험 프로그램, 플라마켓 등도 기대해 볼 만하다.

정현을 시장은 “2023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페스타가 방문객 맛을 채비를 다 마쳤다”며 “전국적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익산의 미디어아트 페스타를 직접 느껴보고, 세계의 귀중한 문화유산인 미륵사지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전북교육감 관사 매각

전북교육감 관사가 매각됐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시 효자동 2가(골든벨리스휴먼시아)에 소재한 교육감 관사(188.21㎡)를 6억1,3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거석 교육감 취임 직후부터 “자택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또 교육감 집무실에서도 각계각층 인사들과의 의사 소통 공간이 충분하다”고 밝히면서 매각 절차가 진행됐다.

이후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전자 입찰 방식인 온비드를 통한 입찰에 부쳤으나, 올해 2월까지 7차례 유찰된 바 있다. 이에 관련 근거에 따라 지난 5월 공인중개사에 매각을 의뢰해 이날 1일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감 관사 매각 대금을 미래교육 공약사업에 투자기로 했다. /정은성 기자

## 23일 개막 항저우AG 전북 39명 출전

육상·펜싱·배드민턴 등 14개 종목 메달 사냥 노려

오는 23일 개막하는 항저우아시아경기대회에 전북에서는 39명(지도자 3명 포함)이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 메달 사냥에 나선다.

7일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23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중국 항저우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19회 항저우아시아게임에 전북에서는 39명의 선수와 임원이 14개 종목에 출전한다. 육상 종목에는 유규민과 김태희, 신

유진이 수영 종목에서는 문승우와 한다경, 김혜진이 경영에 이은희와 김서원, 박예은 문다윤 장환희는 수구에 출전한다.

특히 지난 2월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대회에서 세단뛰기 동메달을 목에 건 유규민과 한국 여자 수영 간판 한다경, 문승우가 메달을 노린다.

▶ 2면에 계속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

www.firefly.or.kr

# BANBANDN

## 제27회 The 27th Muju Firefly Festival

# 반딧불축제

2023.  
9/2(토) - 9/10(일)

주최: **무주군**

주관: **무주반딧불축제재정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환경부** **신북한문화재단**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문의: 063)324-2440